

1930년대 농촌계몽소설에 나타난 농촌의 의미

- 이광수의 『흙』을 중심으로

차 성 연*

차 례

1. 서론	4. 조선 내부의 ‘차이’와 상상적 봉합
2. ‘도시-학생’의 부채의식과 ‘고향-어머니’로서의 심상공간	5. 민족적 특수성의 발견과 주체의 재구성
3. 전근대적 관습과 근대적 입법의 대립	6.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이광수의 장편소설 『흙』을 통해 1930년대 ‘농촌’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탐구하는 데 있다. 개화기 이후 시작된 도시 중심의 서구적 근대 문물 유입으로 인해 1930년대의 농촌은 전근대적 가치와 관습이 잔존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진 근대화의 모순이 방출·집결되는 장소가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소설에도 그대로 재현되어 1930년대 장편소설에서 도시/농촌의 대립구도는 흔히 찾아볼

* 경희대 강사

수 있는 정형화된 패턴으로 나타난다. 『흙』을 비롯한 농촌계몽소설은 이러한 대립구도를 도시 여성과 농촌 여성과의 연애서사로 재현하며 이는 농촌을 ‘고향-어머니’와 같은 심상공간으로 자리하게 한다.

어떠한 공간이든 동일한 성격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처럼 1930년대의 농촌 또한 서구적인 것과 조선적인 것, 전근대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이 서로 길항하며 혼종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전 시대의 전근대적 관습이 그대로 남아있는가 하면 급속한 근대화의 모순이 방출되는 공간으로서 작품 『흙』에서는 이것이 전근대적 관습과 근대적 입법체계와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1930년대의 농촌계몽소설은 농촌의 이러한 모순적이고 이질적인 성격 속에서 민족적 특수성을 발견하고자 하며 ‘도시-학생’과 ‘농촌-농민’이라는 두 주체를 재구성하고 있다.

주제어 : 이광수, 『흙』, 1930년대 농촌, 내부 식민지

1.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이광수의 장편소설 『흙』¹⁾을 통해 1930년대 ‘농촌’이라는 공간²⁾의 의미를 탐구하는 데 있다. 식민지 시기의 도시가 근대적

1) 이광수의 『흙』은 1932년 4월 12일부터 1933년 7월 10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다. 본고는 이를 원전으로 하되 전집(상중당, 1971)의 오식(誤植)과 오기(誤記)를 바로 잡았다고 소개된 문학사상사판 ‘한국문학대표작선집’ 11(1992년)을 텍스트로 삼아 분석하기로 한다.

2) “사실 1920년대까지만 해도 ‘농민’이란 말은 한국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사회적 범주는 아니었던 것 같고, 설사 그 말이 있었다 해도 ‘peasant’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드물었다.”(클라크 소렌슨, 『식민지 한국의 ‘농민’ 범주 형성과 민족 정체성』, 신기욱 외, 『식민지 근대성』, 삼인, 2006, 416면)는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촌’ 또한 1920-30년대에 새롭게 구성된 공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근대화를 통해 ‘도시’ 공간이 형성되면서 그에 대한 대타적 의미로서 ‘농촌’이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클라크 소렌슨은 서구에서의 농민(peasant)이 행위로서의

제도와 문물의 수혜를 입는 동안 그 부정적인 잔여물들은 농촌으로 방출되어 도시의 발전에 비해 농촌의 폐해는 갈수록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1930년대는 이러한 도시/농촌 간의 격차 및 대립이 심화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시기였고 이에 조선·동아일보와 같은 유력지들이 대대적으로 농촌계몽운동을 벌였으며 KAPF 진영에서도 조선민중의 80%에 달하는 농민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³⁾ 이 논문은 대표적인 농촌계몽소설인 『흙』을 분석함으로써 1930년대 도시/농촌의 대립구도 속에서 농촌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또 그것이 소설화되는 양상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910-20년대가 세계와 동시대적 감각을 유지하며 보편주의적 시각을 표면화했던 시대라면 1930년대는 이른바 ‘특수’에 대한 인식이 짝트기 시작한 시기로 볼 수 있겠다.⁴⁾ 서구적 보편지향성에 반해 동양주의, 조

농경보다는 독립적이고 전통적인 생활 방식으로서 특정 농촌 지역의 경작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반면 한국의 농민은 조선적인 민족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상상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농촌 또한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인의 종족적인 공간”으로서 재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농촌의 의미에 대한 이러한 재구성이 1930년대에 급격하게 진전되었다고 보고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본고 5장 참고)

- 3) 이광수의 『흙』을 비롯한 한국의 농민문학이 1930년대에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은 당시의 산업이 철저하게 농업중심의 구조였으며, 농민이 전체인구의 80%가 넘었고,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이 가장 노골적으로 또 철저하게 자행된 곳이 농촌이었으며 그 대상이 농민이었다는 것에서 근원을 살펴볼 수 있다. 동시에 농촌의 절대적인 빈곤과 그 빈곤타파를 위해 종교기관에서 벌인 운동을 비롯하여 여러 단체나 출판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농촌계몽운동의 영향 때문에 농민소설이 활발하게 발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1930년대에 농민소설이 성행한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요, 독자대중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신, 『1930년대 한국과 농촌계몽소설 『흙』에 나타난 이광수의 계몽의식』, 『지역연구소 논문집』, 1994, 18면.
- 4) 권보드래는 1910년대를 “국가라는 최종 심급이 사라지면서 개인성이 새롭게 발견”된 동시에 그 개인성은 ‘민족’보다는 ‘인류’의 일원으로서의 보편적 개인이었다고 설명한다.(『진화론의 갱생, 인류의 탄생』, 『대동문화연구』, 2009) 또 김윤식은 1930년대에 ‘지방성’, ‘특수’에 대한 인식이 짝트기 시작했다고 본다.(『안수길

선주의를 내세웠으며 세계 속의 조선 보다는 조선 내부의 차이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1930년대 초반의 농촌계몽운동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의 전환 속에서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의 ‘브-나로드’ 운동이 1930년대 조선에서 새롭게 조명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조선 내부의 차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계급 계층적 공간이 농촌이었고 농민을 국민으로 동질화하기 위한 작업의 시작은 문맹을 깨치는데 있었던 것이다. 이에 ‘도시-학생’ 계층이 그 주체로 새롭게 호명되었으며 『흙』을 비롯한 농촌계몽소설에는 ‘도시-학생’ 계층이 농촌을 접하며 겪는 갈등 및 갱생의 과정이 중심 서사로 등장한다.

또한 1930년대의 농촌계몽운동은 농촌을 통해 서구화되지 않은 가치를 찾아냄으로써 이를 민족적 특수성으로 명명하고자 하는 민족주의적 기획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이광수의 장편소설 『흙』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기획이 어떠한 형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1930년대 농촌이라는 공간이 지닌 의미를 탐구해나갈 것이다.

이광수의 『흙』은 심훈의 『상록수』와 함께 1930년대에 전개된 ‘브나로드 운동’의 문학적 산물이다. 이광수는 당시 동아일보의 편집국장으로서 이 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그 운동의 시범작으로 『흙』(1932.4.12-1933.7.10, 『동아일보』 연재)을 썼다.⁵⁾ 이에 따라 그간의 연구 또한 농촌 소설로서의 의의⁶⁾, 작품에 담긴 이광수의 민족주의·계몽주의 사상에 대한 연구⁷⁾가 주를 이루었다. 1980, 90년대에 들어 문학사 서

연구, 정음사, 1986)

5)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개정·증보판), 솔, 1999, 183면.

6) 민병휘, 『춘원의 『흙』과 민촌의 『고향』』, 『조선문단』, 1935. 6.

정한숙, 『농촌소설의 변용과정』, 『한국현대소설론』, 고려대 출판부, 1977.

김윤식, 『1930년대 농촌 계몽의 문학적 양상』, 『한국문학의 논리』, 일지사, 1974.

임영환, 『1930년대 한국농촌사회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6.

김병관, 『『흙』과 『고향』의 대비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89.

7) 이는 작가론 차원의 연구가 주를 이룬다.

한승옥, 『이광수 연구』, 선일문화사, 1984.

윤홍노, 『이광수 문학과 삶』, 한국연구원, 1992.

술, 작가론적 접근을 통해 『흙』을 언급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작품에 대한 내재적인 접근, 즉 인물 유형이나 서술 방식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⁸⁾이 행해졌으며, 2000년대에는 식민지 시기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접근이 활발해짐에 따라 『흙』에 나타난 내부 식민주의의 문제⁹⁾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광수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 양적·질적인 수준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김윤식은 『흙』이 이광수의 작품들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작품으로 보았다. 춘원이 내세웠던 문학여기론(文學餘技論)에서 벗어난 작품이고 본기(本技, 동우회운동)의 이념에 따라 쓰여진 작품이라는 것이다. 또 “춘원의 작품 중 『흙』만큼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또 많은 독자를 획득한 작품은 없”으며 “『흙』은 우리 근대소설사 중에서 큰 주제군을 형성하는 농촌소설 혹은 농민소설의 머리에 놓이는 것이기도 하다”고 『흙』의 문학사적 의미를 평가했다.¹⁰⁾ 이처럼 『흙』은 이광수 문학 전반

한용환, 『이광수 소설의 비판과 옹호』, 새미, 1994.

정호웅, 『한국현대소설사론』, 새미, 1996.

이상신, 앞의 글.

8) 구인환, 『이광수 소설 연구』, 삼영사, 1983, p.106.

우남득, 『한국 근대소설의 인물, 서사유형 연구-이광수와 김동인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4.

신헌재, 『이광수 소설의 분석적 연구』, 삼지원, 1986.

이선영, 『『흙』의 서사와 그 의미-체제 속의 이상촌과 예측자본주의』, 『리얼리즘을 넘어서』, 민음사, 1995.

홍혜원, 『이광수의 『흙』 연구』, 『이화어문논집』, 1999.

최갑진, 『이광수 ‘흙’의 시공간성 연구』, 『동남어문논집』, 1992.

이명우, 『이광수의 『흙』 연구』, 『동국어문학』, 1995.

남춘애, 『이광수(李光洙) 『흙』의 서사구조(敘事構造)의 양상(樣相)』, 『문예시학』, 2006.

9) 오윤호, 『『흙』의 식민지 근대와 수사적 특이성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004.

김병구, 『李光洙 長篇小說에 있어서의 怨恨의 政治詩學』, 『어문연구』, 2008.

이진경, 『수행적 민족성 - 1930년대 식민지 한국에서의 문화와 계급』, 『한국문학연구』, 2005.

10)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3』, 한길사, 1986, 861-863면.

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있어서나, 농촌계몽소설의 계보 속에서 특별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어 1930년대 농촌의 의미를 살펴보는 텍스트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흙』을 비롯, 심훈의 『상록수』 및 여타 농촌계몽소설의 범주에 드는 작품들을 참고하여 소설 속에서 드러나는 1930년대 농촌의 의미를 조명해보려 한다.

2. ‘도시-학생’의 부채의식과 ‘고향-어머니’로서의 심상공간

1930년대는 개화기를 거치며 유입되기 시작한 근대적 제도와 문물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른바 근대적 가치라 불리는 것들이 ‘개인’의 내면에 영향을 미치고 스며들기 시작했던 시대로 볼 수 있다. 상류층의 경우 가문이나 관직의 직급과 같은 것들로 ‘개인’의 정체성과 위상이 규정되던 이전 시대에 비해, 독립된 개체로서의 ‘개인’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그가 지닌 문화적 취향과 교양 수준으로 각 ‘개인’의 특이성이 발화되기 시작했다. 당시의 신문·잡지에 범람했던 문화적 담론 및 각종 가십들은 내용의 깊이를 떠나 그 자체로 과잉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데, 이는 그것만이 ‘나’를 규정지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 아니면 설명되기 힘들다. ‘에로·그로·넌센스’와 같은 감각의 과잉 및 오인¹¹⁾이 발생한 원인이 여기에 있다. 물론 이러한 진단은 도시에서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청년 지식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들은 1930년대 초·중반에 걸쳐 농촌계몽운동의 주체로 호명되는데 농촌의 현실은 그들의 감각에 혼동을 일으키며 윤리적인 갈등을 유발시켰다. 이광수의 『흙』과 같은 당시의 신문연재소설에는 ‘농촌계몽소설’이라는 명명에서 기대되는 바와 같은 농촌계몽의 전개과정보다는 이러한 감각의 혼동 및 윤리적인 갈등이 중심

11) 소래섭, 『에로 그로 넌센스: 근대적 자극의 탄생』, 살림, 2005. 참고

서사로 등장한다.

도시에서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청년 지식인이란 누구인가. 『흙』에 도 설명되어 있듯이 “선조 대대로 피땀 흘려 갈아 오던 논과 밭과 산을, 혹은 고리대금에 저당을 잡히고, 혹은 파고 해서까지 서울로 공부하러” 올려보내 형성된 계층이다. 이른바 ‘우골탑’이라는 말의 어원은 이 시대로부터 형성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선조 대대로 피땀 흘려 갈아 오던 논과 밭과 산—그 속에서는 땅만 뿌리면 밥과 옷과 채소와 모든 생명의 필수품이 다 나오는 것이다—을, 혹은 고리대금에 저당을 잡히고, 혹은 팔고 해서까지 서울로 공부하러 오는 학생이나, 자녀를 보내는 부모나, 그 유일한 동기는 땅을 파지 아니하고 놀고 먹지는 것이다.(…) 아무리 제간에는 도회식으로 차린다고 값진 옷을 입더라도, 원 도회 사람의 눈에는 <시골, 무지렁이, 시골뜨기> 하는 빛이 보여 골계에 가까운 인상을 주는, 그러한 청년 남녀들이 땅을 팔아 가지고 부모는 굶기면서 종로로, 동아, 삼월, 정자옥으로 카페로, 피땀 묻은 돈을 뿌리고 다니는 것을 보면 일종의 비참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지 아니하냐.¹²⁾

이러한 ‘도시-학생’ 계층¹³⁾은 1900-1930년대 사이에 일어난 전근대적 시공간에서 근대적 시공간으로의 시대적 변모를 몸으로 체현한 집단이

12) 이광수, 『흙』, 문학사상사, 1992, 21면.(이하 인용면수는 본문 중 괄호 안에 숫자로 표기함)

13) 도시에서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청년 지식인에는 『흙』의 윤정선이나 김갑진과 같이 양반 계층의 자제로서 도시에서 나고 자란 유복한 환경의 청년들도 있었지만 허승과 같이 농촌 출신으로서 집안의 물질적 희생을 딛고 교육받은 청년들이 많았다. 『흙』의 주인공이 허승인 것에도 알 수 있듯이 농촌계몽운동의 주체로 호명된 계층은 단연 후자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을 ‘도시-학생’ 계층이라 부르기로 한다. 농촌계몽운동의 주체로 러시아에서 사용되던 용어인 ‘인텔리겐차’를 들고 있지만, “식민지 조선에서 인텔리겐차이라는 범주는 보통 학생을 포함하였다.”(김현경, 『민중에 대한 빛—브나로드운동의 재조명』, 『언론과 사회』, 2008. 가을, 60면) 김현경의 논문에서도 한국의 농촌계몽운동은 ‘민중에 대한 인텔리겐치아의 빛’이 심리적 부채의식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라 할 만하다. 이들은 위 인용문에서 진술된 것처럼 농촌이라는 전근대적 시공간에서 태어나 유아기를 보낸 뒤, ‘서울’로 보내져 근대적 사상을 교육받고 더불어 근대 문물을 향유한 계층으로서 청년기에 급격한 변동을 체험한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내면은 분열적일 수밖에 없다. 가부장적 이념에서 벗어난 근대적 ‘개인’으로서 ‘정’¹⁴⁾의 실현에 대한 욕구, 신분상승의 욕구가 있는 한편, 그들이 나고 자란 농촌의 기억이 의식/무의식의 층위에 자리잡고 있다. 근대적 제도 문물을 향유한 그들의 의식은 도시적 취향과 문화적 교양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지어려 하지만 실제 그들의 물질적 토대는 농촌의 빈한한 현실인 것이다.

두 항 사이의 갈등이 서사화된 것이 농촌계몽소설에 나타난 도시 여성과 농촌 여성 사이의 갈등 및 연애 서사이다. 1930년대 농촌계몽소설에는 거의 예외없이 남녀간의 연애가 중심 서사로 등장한다. 심훈의 『상록수』에서는 박동혁과 채영신, 이석훈의 『황혼의 노래』에서는 정철과 보패, 이무영의 『먼동이 틀 때』에서는 일도와 대사업가의 두 딸들이 연애관계에 있다. 이광수의 『흙』 또한 주인공 허송의 농촌계몽의 과정이 중심서사를 이룰 것이라는 통상적인 기대와는 달리 유순과 정선 사이에서 갈등하는 허송의 내면과 허송을 따르는 여성 인물들의 연애의 감정이 주된 서사를 이룬다. 이는 물론 1930년대의 농촌계몽소설 및 장편소설이 주로 신문연재의 형식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대중성과 통속성을 가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흙』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촌계몽소설에 ‘연애’가 주된 서사로 작동하는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 한다. ‘도시-학생’ 계층은 대다수가 농촌에서 올라와 도시에서 일정한 성취를 이룬 남성인데 이들 남성들은 도시 여성과 결혼함으로써 신분

14) 이광수에게 ‘정(情)’은 폭넓은 용어였다. 그는 ‘정’에 “연애라든가, 분원(憤怨), 비애, 오한(惡恨), 희망, 용장(勇壯)”을 비롯하여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감정을 포괄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이광수는 ‘정’의 중요성이 개인의 출현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믿었다. —마이클 신, 『내면 풍경: 이광수의 ‘무정’과 근대문학의 기원』,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삼인, 2006, 365면.

상승을 이룰 기회를 얻게 된다. 『흙』의 허승은 양반 집안의 자제인 윤정선과 결혼함으로써 사회적 명망과 부를 얻게 된다. 이에 비해 ‘도시-학생’이 교육받고 성취를 이룰 동안 물질적 토대가 되어주었던 농촌의 여성들은 버림받는다. 허승 또한 유순을 놓고 오랜 기간 갈등하지만 결국 정선을 택한다. 이로써 농촌 여성은 고향-어머니와 같은 심상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¹⁵⁾

여기서 농촌 여성과의 연애는 실패하고 도시 여성과의 결혼에 성공하게 되는 것은 당시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시 여성과 결혼함으로써 근대적 주체로서의 신분 상승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지만, 내면에 남아있는 농촌-고향-어머니에 대한 죄의식은 농촌 여성과의 결혼이 아닌 농촌계몽운동에의 참여로 대체하려 했던 것이다.

1919년 3·1운동 당시만 해도 ‘도시-학생’ 계층은 주도 세력으로 형성되지 못 했다.¹⁶⁾ 1930년대의 농촌계몽운동은 ‘도시-학생’을 사회의 지도층으로 호명한 첫 사건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¹⁷⁾ 이는 물론 ‘도시-

- 15) 장혁주의 『삼곡선』(1934-35년, 『동아일보』 연재 농촌계몽소설)에도 ‘고향-어머니’와 같은 맥락을 지닌 여성(영주)이 등장한다.(줄고, 『장혁주의 『삼곡선』 연구』(『어문연구』, 2010 여름) 참고) 이러한 여성들은 남성이 타락한 공간에서 세속적 욕망을 충족시키며 훼손된 심리를 보상받고자 순수성의 표상을 지니게 되며 이들이 있는 고향-농촌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모성애적 공간으로 설정된다.
- 16) 대부분의 성공한 지역 3·1운동은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연합 세력을 형성하여 앞에 나서서 활약”하는 방식을 취한 운동이었으며, 도시-학생, 나아가 동경-유학생의 영향력이란 그렇듯 중첩된 회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파되는 변수일 따름이었다.(…) 당시의 지역 붕기에서 도시-학생-지식인의 형상은 전혀 목격되지 않는 경우도 잦다. 도시-학생이 결코 단일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아니었다는 사실 또한 상기되어야겠다. —권보드래, 『진화론의 갱생, 인류의 탄생』, 『대동문화연구』 제66집, 247-248면.
- 17) 이 운동의 주역이 학생층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학생층이 또한 신문 및 소설의 독자층임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그 통계를 약간 엇볼 필요가 있다. 제2회 때의 참가대원수는 2,724명이었는데 남녀 중학생이 34개교에서 1,931명, 전문학교 8개교에 118명, 여학교 3개교에 34명, 별동대가 675명이었으나, 제3회엔 여학교와 전문학교 쪽의 비중이 높아졌다.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3』, 한길사, 1986, 857-858면.

학생' 계층이 하나의 집단으로 구성될 만큼 양적·질적으로 성장해있었고 이들을 지도층으로 활용하는 것이 민족주의적 기획의 일환으로 논의될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광수가 가담한 수양동우회¹⁸⁾가 그러한 성격이었고 『흙』의 한민교 선생이 민족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는 일이 바로 청년 사업인 것도 같은 맥락에 놓인다.

(...) 그는 낮이나 밤이나 참된 젊은이를 만나서 조선의 이상을 말하고 조선 사람이 앞으로 해 나갈 일의 계획을 말하고 청년의 사명을 말하고 조선의 희망과 자신을 말하고 이리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조선의 힘 있고 미쁜 아들을 구하는 것으로 일을 삼고, 의무를 삼고, 낙을 삼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선에 대한 은혜 갚음의 오직 한 길이요, 또 조선을 건짐의 오직 한 길이요, 자기의 일생을 값있게 하는 것의 오직 한 길이었다.(272-273)

당시의 농촌계몽운동이란 도시의 학생들이 일정 기간 동안—영구적 귀농이 아니라—농촌에 내려가 문자나 위생 개념을 교육시키는 것이었고 이러한 '도시-학생' 계층이 하나의 지도적 집단으로서 재발견되는 지점에 농촌계몽운동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 전근대적 관습과 근대적 입법의 대립

허승의 직업이 변호사라는 사실은 『흙』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18) 수양동우회는 1913년 5월 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안창호에 의해 조직된 흥사단의 국내 지부로서 '민족성의 개조'와 '인격수양'을 목적으로 하는 수양단체로 출발했다. 흥사단은 민족 '前途大業의 기초'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務實·力行·忠義·勇敢의 정신으로 덕성을 함양하고 신체를 단련하여 기력을 튼튼하게 하며 각자 전문지식 또는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건전한 인격을 기른다는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이현주, 「일제하(수양)동우회의 민족운동론과 신간회」, 『정신문화연구』, 2003, 187면.

요인 중 하나다. 자수성가하여 윤참판의 딸과 결혼하게 된 것도 신문에 이름이 오를내릴 정도로 명예를 얻게 된 것도 그가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노릇을 했기 때문이고 고향인 살여울에 내려가 금의환향한 귀인 대접을 받는 것도 그가 변호사로 성공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가 고향에 돌아와 가장 먼저 처리한 일이 ‘황 기수 구타사건’이며 이 일로 마을 사람들의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된다.

‘황 기수 구타사건’이란, 신참사의 논에서 품팔이로 모내기를 하고 있던 유순과 마을 사람들에게 황 기수란 자가 모욕을 주고 이를 참지 못한 맹한갑이 황 기수에게 반항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관리인 황 기수와 마을 사람들의 물리적 충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전근대적 관습과 근대적 입법 사이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유순이 황 기수에게 손목을 잡히고 뺨까지 맞게 된 것은 여인으로서 남의 앞에 나서기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그런 유순의 손목을 잡아 끌고 뺨까지 때린 것은 조선 전통의 유교적 관습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사건의 표층은 관리를 때린 마을 청년들의 범죄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다.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허승은 경찰서를 찾아가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잠깐 내 말씀을 들으세요. 사건의 진상이 어찌 되고 하니 황 기수가 유순이라는 열아홉 살 되는 처녀의 손목을 잡아끄는 것이 사건의 시초 외다. 서장은 물론 조선 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조선서는 남의 부녀에게 모욕을 하거나 손을 대는 것이 용서할 수 없는 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 한갑이라는 청년이 황 기수의 팔을 붙들고 제지를 했는데, 황 기수가 맹 한갑의 면상을 세 대나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맹 한갑은 폭력을 쓰지 않고 말로만 승강을 하다가 황 기수가 주먹으로 맹 한갑의 면상을 질러서 코피가 쏟아질 때에 맹 한갑은 비로소 황 기수를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오는 위해를 면하려는 정당방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곱 사람은 두 사람이 마주 붙은 것을 뜯어말리려고 모여들었던 것이라고 합니다.(…)』(133-134, 이하 밑줄은 필자)

이러한 허승의 진술은 사건의 발단이 농촌에 남아있는 전근대적 관습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근대적 행정체제의 대립에서 비롯되었음을 말해준다. 근대적 행정체제는 피해자와 가해자, 증인의 증언, 그리고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범죄’를 구성한다. 사법적으로 이 사건의 피해자 위치에 있는 황 기수는 “자기의 농업 기수로 공무를 행하기 위하여 정조식을 권장할 때에 맹 한갑을 수모자로 한 농민 팔 명의 일단이 공산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자기에게 반항하고 마침내 맹 한갑을 선두로 자기를 모욕하고 구타하였다”(136)고 증언하였고 경찰 측은 가해자이며 약자인 마을 주민들의 입장이 아니라 이러한 황 기수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구성한다. 허승은 이를 “농민의 반항이라면 으레 공산주의적, 또 농민의 말과 관리의 말이 있으면 둘째 것을 믿을 것”이라는 “일종의 공식”이라고 말한다. 허승은 변호사로서 황 기수의 증언이 위증임을 밝히고 마을 사람들이 석방되도록 한다.

이처럼 농촌이 전근대적 관습과 근대적 입법의 대립공간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흙』 전반을 근대적 입법에 의해 전근대적 관습을 개조·계몽하는 서사로 보기는 힘들다. ‘황기수 구타 사건’에서 경찰의 태도를 보아도 알 수 있듯 근대적 입법이 때론 사실을 호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변호사인 허승도 근대적 입법체계를 신뢰하지만은 않는다.

승에게 있어서는 혼인은 다만 법률적 계약 행위만은 아니었다. 법률이 규정하는 것은 혼인의 법률적 일면뿐이다. 도덕이 규정하는 것은 혼인의 도덕적 일면뿐이다. 혼인에는 예술적 일면도 있고 생물학적 일면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종교적 일면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모아 놓더라도 그것이 혼인이란 것이 가진 모든 뜻을 다 설명하지는 못할 것이다.(280)

승이가 유 순이나 한갑에게 대하여 깊이 느끼는 도덕적 책임은 그의 법률적 이론을 둔하게 만들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제가 책임 없는

것을 말해 버리면 그만이 아닌가. 유 순과 간통한 사실도 없고, 한갑을 교사한 사실도 없다는 것을 밝히 말하면 그만이 아닌가. 그렇지만은 승의 마음은 그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차라리 한갑과 공범이 되어서 한갑이가 받는 형벌을 같이 받는 것이 정당한 듯하였다.(455)

허승은 오히려 근대적 입법이 강제하지 못하는 종교적 차원을 지향하며 법률적 책임 이상의 윤리적 책임을 가늠하고자 한다. 정선이 갑진과 육체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이혼할 명분을 충분히 가지게 되었으면서도 혼인의 예술적·생물학적·종교적 일면을 생각하는 것이나, 유정근의 모함으로 살인 교사죄 혐의를 받게 되었음에도 법률적 사실 관계가 아닌 윤리적 책임 관계를 생각하는 위의 장면들이 그러하다. 즉 작품 『흙』에서 농촌이라는 공간은 전근대적 관습이 잔존하는 곳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거기에 근대적 입법체계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치는 조선적인 것으로, 종교적·초월적인 것으로 표상되면서 4장에서 설명할 상상적 봉합과 초월적 전망의 투사 공간으로서의 농촌의 의미를 지니게 한다.

4. 조선 내부의 ‘차이’와 상상적 봉합

식민지 시기의 농촌은 근대화 과정의 주변부로서 전근대적 가치와 관습이 잔존하는 공간이면서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진 근대화의 모순이 방출·집결되는 장소였다. 농촌 사회 또한 자본주의체제에 유입되어왔지만 그 내부 구성원의 삶의 질은 향상되지 않았다. 지주들은 오히려 농업 공황의 타개책으로 소작농에 대한 수탈을 더욱 강화했고 대다수가 소작농이었던 농민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져 갔다.

(…)이십 년 래로 돈이란 것이 나와 돌아다니면서, 차란 것이 다니면

서, 무엇이니 무엇이니 하고 전에 없던 것이 생기면서 어찌 되는 심을 모르는 동안에 저마다 가지고 있던 땅마지기는 차차 차차 한두 부자에 게로 모이고, 예전 땅의 주인은 소작인이 되었다가 또 근래에는 소작인도 되어 먹기가 어려워져 혹은 두벌 소작인(한 사람이 지주에게 땅을 많이 얻어서, 그것을 또 소작인에게 빌려주고 저는 그 중간에 작인의 등을 쳐먹는 것, 마름도 이 종류지마는 마름이 아니고도 이런 것이 생긴다)이 되고 최근에 와서는 세력 없는 농부는 소작인도 될 수가 없어서 순전히 품팔이만 해먹게 되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는 것이다. (96)

이러한 상황에서 신문물에 젖어있던 ‘도시-학생’의 눈에 비친 농촌은 사람이 살 만하지 않은, 전혀 딴 세상과 같은 공간이었다.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식민주의자의 시선을 내면화한 그들은 농촌을 내부 식민지로 바라보면서 “전도된 문명화 의식”¹⁹⁾을 드러낸다. 서구의 전도사들이 조선을 찾아와 계몽화·문명화를 실천했듯이 서구적 문물을 받아들인 ‘도시-학생’ 계층은 농촌을 찾아와 문명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모방된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 그러므로 시골은 외국 같았다. 외국이라 하더라도 야만인이 사는 외국, 도무지 서울 사람이 살 수 없는 오랑캐 나라와 같았다. 그 밭 벗고 다니는 촌 여편네들, 시꺼먼 다리를 내놓고 남의 집을 막 드나드는 사내들, 걸핏하면 무엇을 집어가는 아이놈들, 이 무지하고 상스러운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179)

구더기 움질거리는 똥장도 집집마다 있는 것이 못 된다. 모래알 같은 호르몬도 집집마다 있는 것은 못 된다. 이렇게 참혹한 것을 먹고 나도 어슬어슬하여 오면 모기가 아우성을 치며 나오고, 곤한 몸을 방바닥에 누어 잠이 들 만하면 빈대와 벼룩이 침질을 한다. 문을 닫자니 찌고, 열자니 모기가 덤비지 않느냐. 아아 지옥 같은 농촌의 밤이여! 축을 피워 눈물이 쏟아지도록 연기를 피우면 모기는 아니 덤비지마는, 축이 꺼지기

19) 오윤호, 앞의 글, 43-50면.

만 하면 우와하고 총공격을 하지 않느냐. 아아 지옥 같은 농촌의 밤이
연.(102)

조선 내부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농촌을 내부 식민지로서 새롭게 발견하고 그곳을 문명화함으로써 조선을 근대화하려는 새로운 봉합에의 시도를 낳게 된다. 농촌의 문명화는 『흙』에서 허송이 의사를 데려와 병자를 치료하고 위생 개념을 도입·교육시키는 것과 같은 과정을 통해 실현된다. 하지만 모방된 의식을 통해 행해지는 문명화는 서구적 가치를 그대로 쫓아가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문물 및 제도는 받아들여지되 그 정신적 가치는 서구적인 것을 따르지 않았던 것인데, 이는 서구적 근대화 과정을 경험한 도시에서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바 있기 때문이다. 그 시행착오란 ‘돈’을 숭배하는 물질만능의 사상과 개인적 욕망을 억제하거나 숨기지 않는 퇴폐·향락 풍조의 만연이다. 이에 따라 『흙』에서도 도시와 농촌을 딴 세상처럼 대비시키고 도시의 타락상을 비판하는데 작품의 상당 분량을 할애한다.²⁰⁾

『흙』에서 도시의 타락상을 대변해 보여주는 인물은 정선이다. 허송의 아내인 정선은 “돈이 제일”이라는 것과 “성욕을 중심으로 한 향락 생활”을 근본 사상으로 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허송에게 서울의 재산을 정리하고 살여울로 내려갈 것을 약속하지만 정작 서울에 와서는 “먹을 걱정은 없고 별로 바쁜 일도 없는” 이틀끼리 모여 잡담하면서 허송과의 약속을 저버린다.

그들이 모여서 하는 말은 잡담이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화제는 고집과 연애 이야기였으나, 가끔 직업 이야기도 나왔다. 이를테면 이른바 예

20) 1930년대의 소설에서 도시의 타락상과 농촌의 열악한 현실을 대비시키는 구도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정형화된 패턴이다. 도시는 서구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물들어 타락한 공간으로 설정되고 이와 대비되어 농촌은 순수성의 공간, 한 국민의 본질적 원형 공간으로 표상된다.

로, 그로, 년센스에 사는 종교는 조선의 인텔리겐차 여성까지도 완전히 정복하고 말았다.

십년 전 여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애국이니 이상이니 하는 도덕적 말들은 긴 치마, 자주 땀기와 같이 영원한 과거의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고 말았다.(…) (189)

결국 정선은 육체적 불구가 됨으로써 허송과 함께 농촌으로 간다. 정선뿐만 아니라 미국유학을 다녀오기도 “돈 있는 미인한테 장가를 드는 것”을 “일편단심”으로 삼은 이견영, 정선을 유혹해 임신시키는 김갑진 등의 인물들은 1930년대 도시-청년-지식인의 타락상을 비판하려는 작가 의식의 산물로서 작품에서도 꽤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농촌의 근대화와 문명화는 어떠한 정신적 가치를 향해 나아 가는가. 1930년대 후반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논리에 의해 구체화되기는 하지만 서구의 개인주의, 자본주의, 물질주의를 비판하고 넘어서는 대안으로 동양주의·조선주의가 그 지향점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광수는 그의 민족주의적 행보에도 불구하고 조선주의에 깊게 매료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광수가 농촌에서 발견하는 가치는 초월적이고 종교적인 것에 가깝다.²¹⁾

이 왜나무도 그 나무가 선 땅이 근년에 몇 번 소유권이 변동되었지만, 이 나무는 말없는 계약과 법률로 이 동네 공동의 소유였다.(…)

이 말이 믿기지 아니하거든 이 경력 많은 왜나무더러 물어 보라. 그는 적어도 사오백 년 동안 이 살여울 동네의 역사를 목격한 증인이다. 이 동네에서 일어난 기쁨을 아는 동시에 슬픔도 알았다. 더구나 이 동네 수염 센 어른들이 짚방석을 깔고 둘러앉아서 동네 일을 의논하고 잘못된 이를 심판하고, 훈계하고 하는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사무가 처리된 것을 이 왜나무는 잘 안다. 비록 제일조, 제이조 하는 시끄럽고 알아

21) 이광수가 발견한 조선적이면서도 초월적인 가치를 이 논문 5장에서는 민족적 특수성의 맥락에서 설명하였다.

보기 어려운 성문율이 없다 하더라도 조상 적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오는 거룩한 율법이 있었고, 영혼에 밝히 기록된 양심이 있었다. 그들은 어느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어느 한 사람에게 손해를 지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무릇 온 동네의 이익이라든지 명예에 해로운 일을 생각할 줄 몰랐다. 그것은 이 왜나무가 가장 잘 안다. 개인과 전체, 나와 우리와의 완전한 조화—이것을 이상으로 삼았다.(119)

앞 장에서도 서술되었듯이 살여울의 왜나무는 “말없는 계약과 법률”, 즉 성문을 이상의 “거룩한 율법”을 체현하고 있는 상징적인 존재이다. 전통적·조선적이면서도 그 이상의 가치를 함축하고 “개인과 전체, 나와 우리와의 완전한 조화”를 이상으로 삼는 이러한 초월적 가치를 이광수는 농촌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광수의 『흙』은 농촌에서 타락한 도시와 대비되는 초월적인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조선 내부의 ‘차이’를 상상적으로 봉합하고자 한다.

5. 민족적 특수성의 발견과 주체의 재구성

이광수의 장편소설 『흙』은 이광수 문학 전반에서 특기할 만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이광수가 문학을 여기로 삼는다고 공공연히 밝힌 것에 비해 『흙』은 특별히 본기에 접근한 작품이고 수양동우회의 이념을 담아내기 위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²²⁾ 민족주의적인 사상을 넘어 보다 보편적이고 종교적·초월적인 세계관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놓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²³⁾ 이러한 위치에 있는 작품이 특별히 농촌계몽소설의 형

22) 김윤식, 앞의 책, 861-863면.

23) 1937년 6월 이광수는 이른바 동우회 사건으로 체포되었고, 함께 체포되었던 안창호가 병보석으로 병원으로 옮겨진 후 사망한 것은 1938년 봄의 일이었다. 역시 병보석으로 병실에 누워 있던 이광수도 그 전화를 받는 자리에서 혼절하기에 이른다. 그만큼 이광수의 정신세계에서 안창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던 탓

식으로 쓰여졌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이 조선의 내부 식민지로서 개조되어야 할 후진적인 것들을 지니고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과 함께 아직 오염되지 않은 공간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아직 가능성을 지닌 공간이기 때문에 뜻을 실현할 공간으로 설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오염되지 않은 공간에서 민족주의적 주체는 조선적 특수성²⁴⁾을 발견한다. 이광수가 『흙』에서 보고자 한, 근대적 입법체계에 포획되지 않는 ‘거룩한 율법’, 내부의 차이를 봉합할 초월적 가치들은 얼핏 보편지향적인 성격을 지닌 듯하지만 실은 새롭게 발견한 민족적 특수성의 성격을 지닌다. 1930년대 민족주의적 주체는 이전 시대의 보편지향성을 거쳐 ‘특수’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농촌에서 그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다. 서구적인 것과는 다른 조선적 원형을 품은 공간으로 인식된 농촌은 조선적인 것을 발견할 장소로 새롭게 호명되었다.

개화기 이전에는 농민이 곧 국민이었기에 농민이라는 호명이 필요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농촌이 곧 국토 자체였다. 식민지 시기에 도시를 중심으로 근대적 문물이 유입되면서 조선은 도시와 농촌으로 분할되었고 일제에 의해 농촌만이 한국인의 종족적 공간²⁵⁾인 것으로 농촌의 위

이다. 그 무렵을 전후하여 이광수는 점차 대일협력의 길로 접어들고 또한 그의 윤리적 사유는 민족의 한계를 넘어 종교의 세계로 진입하게 된다. —서영채, 『이광수, 근대성의 윤리』, 『한국근대문학연구』, 2009, 156-157면. 이광수가 본격적으로 종교의 세계로 진입한 시기는 1937년경 이후이지만 『흙』을 쓰던 무렵부터 이미 관념적으로는 종교적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24) 이 논문에서 ‘민족적 특수성’이라는 용어는 서구적 보편지향성과 대립되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당시 일제가 조선을 제국의 한 지방으로 설정하고자 했고 그러한 담론이 민족주의 세력에 의해 전유되어 ‘조선적인 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흐름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부각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족적 특수성’과 ‘조선적 특수성’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당시에는 일본의 담론에 다소 저항적인 성격을 지닐 수 있었지만 일제의 근대초극론에 동화되어 갔던 역사의 전개가 말해주듯 언제든지 제국의 담론에 수용될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이광수의 친일 행각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25) 이진경, 앞의 글, 38-47면. 이광수의 『흙』, 심훈의 『상록수』, 이기영의 『고향』 등

치가 재조정되어야 했다. 이는 1930년대 ‘특수’에 대한 인식 속에서 농촌을 통해 민족적 특수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민족주의적 기획으로 전유되었다. 1930년대 농촌계몽소설에서 도시는 서구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물들어 타락한 공간으로 설정되고 이와 대비되어 농촌은 순수성의 공간, 한국인의 본질적 원형 공간으로 표상된다.

도시/농촌의 공간적 대립구도 속에는 ‘도시-학생’과 ‘농촌-농민’이라는 상이한 집단이 자리잡고 있다. 서구적 근대 문물을 향유하면서 개별성에 대한 인식을 가진 ‘도시-학생’과 전근대적 관습을 체화하고 공동체적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농촌-농민’은 농촌계몽운동을 통해 만난다. 이 인위적 만남은 그 기획 의도와는 달리 이질적인 두 집단을 동질화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임무를 지닌 근대적 주체로 재구성하는 계기가 된다. ‘도시-학생’은 서구적 보편지향성을 버리고 민족적 특수성을 각성한 주체로, ‘농촌-농민’은 계몽의 대상인 동시에 민족적 특수성을 체화한 주체로 구성된다. 외면적으로는 ‘도시-학생’이 농촌의 농민을 교육하고 계몽시키지만 실은 그 과정을 통해 ‘도시-학생’ 또한 타락한 개인에서 갱생된 주체로 재교육되고 있다. 갱생된 주체는 농촌의 전근대성에서 ‘조선적’이고도 초월적인 가치를 발견한다.

이광수는 『흙』에 앞서 1916년에서 17년에 걸쳐 『매일신보』에 연재한 『농촌계발』에서 농촌을 이상촌으로 만들고자 하는 전망을 보여준 바 있다.²⁶⁾ 『농촌계발』의 지도자 김일은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 동경으로 유

을 통해 “1930년대 식민지 한국에서의 문화와 계급”을 분석하고 있는 이진경의 논문에서는 1930년대의 농촌계몽운동을 민족 통합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면서 이광수가 “민족적인 계급 균열을 사실상 위장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민족적 특수성, 혹은 “한국인성”은 상류층과 농민 계층의 개혁 가능성이라고 말한다. “서구화된 상류층이 한국인화되고 본질주의화되고, 인종화된 한국 농민이 부분적으로 근대화되고 보편화되는 것.” 이는 ‘도시-학생’ 계층과 ‘농촌-농민’이 농촌계몽운동을 통해 주체로 재구성되고 있다는 이 논문의 문제의식과도 통한다.

26) 정선태는 “『농촌계발』은 이광수의 소설을, 거칠게 말하자면 주제의 측면에서 선

학을 떠났다가 조선에 돌아와 판사로 일하게 되지만 농촌계발에 뜻을 두고 고향으로 돌아온 인물로 허송의 모델이라 할 만하다. 이 김일이 이상촌으로서 농촌을 택한 이유는 농촌이 “전조선 사회의 축소판이자 표상”이기 때문이었다. 이로부터 15년이 지난 1932년 이광수는 『흙』을 쓰는데, 이 작품의 주인공 허송이 농촌으로 간 까닭은 역설적으로 농촌이 “전조선 사회의 축소판이자 표상”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조선은 도시와 농촌으로 분할되었고 이러한 조선 내부의 차이를 민족적 특수성으로서 봉합하고자 농촌으로 가게 된 것이다.

하지만 농촌에서 민족적 특수성을 발견해 낸다고 해서 조선 내부의 ‘차이’가 봉합되고 전 조선 국토가 균질화된 공간으로 재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농촌계몽운동의 장소와 주체로 ‘농촌’과 ‘농민’이 호명됨으로써 도시/농촌의 공간적 분할은 가시화된다. ‘도시-학생’과 ‘농촌-농민’이 농촌계몽운동을 통해 동질화될 수 없었던 것처럼 위계적 공간으로서의 도시/농촌은 시간을 가로질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해방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농촌’ 공간은 도시 중심 개발의 주변부로서, 그 근대화의 모순이 방출되는 공간으로 위치지워졌다. 그러한 공간적 위치는 1930년대 농촌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문제의식이지만, 이는 ‘농촌’을 표상하고 있는 보다 다양한 근현대 소설을 포괄해야 비로소 논증 가능할 것이다.

6. 결론

이 논문은 이광수의 장편소설 『흙』을 통해 1930년대 ‘농촌’의 의미를

취하고 있다”고 보면서 『농촌계발』의 지도자 “김일이 향양촌(向陽村)이라는 농촌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고 그에 대해 “농촌은 전조선 사회의 축소판이자 표상”이라고 답한다.—정선태, 『이광수의 『농촌계발』과 ‘문명조선’의 구상』, 『상허학보』, 2004, 195-222면.

살펴보고자 했다. 개화기 이후 시작된 도시 중심의 서구적 근대 문물 유입으로 인해 1930년대의 농촌은 전근대적 가치와 관습이 잔존하는 공간 이면서 동시에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진 근대화의 모순이 방출·집결되는 장소가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소설에도 그대로 재현되어 1930년대 장편소설에서 도시/농촌의 대립구도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정형화된 패턴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가운데 『흙』이나 『상록수』와 같은 농촌계몽소설은 조선·동아 일보를 중심으로 진행된 농촌계몽운동을 배경으로 ‘도시-학생’ 계층이 농촌을 방문하여 문자와 위생 관념을 교육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소설의 중심 서사는 농촌계몽운동의 주체인 ‘도시-학생’ 계층의 윤리적 갈등과 연애인데 이를 통해 ‘도시-학생’은 민족적 특수성을 각성한 주체로 재교육되고 ‘농촌-농민’ 또한 계몽의 대상인 동시에 민족적 특수성을 체화한 주체로 구성된다.

어떠한 공간이든 동일한 성격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처럼 1930년대의 농촌 또한 서구적인 것과 조선적인 것, 전근대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이 서로 길항하며 혼종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전 시대의 전근대적 관습이 그대로 남아있는가 하면 급속한 근대화의 모순이 방출되는 공간으로서 작품 『흙』에서는 이것이 전근대적 관습과 근대적 입법체계와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1930년대의 농촌계몽소설은 농촌의 이러한 모순적이고 이질적인 성격 속에서 민족적 특수성을 발견하고자 하며 ‘도시-학생’과 ‘농촌-농민’이라는 두 주체를 재구성하고 있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 심훈, 『상록수』, 문학사상사, 2003.(1935. 9. 10-1936. 2. 15 『동아일보』 연재)
- 이광수, 『흙』, 문학사상사, 1992.(1932. 4. 12-1933. 7. 10 『동아일보』 연재)
- 장혁주, 『삼곡선』(한국근대장편소설대계 20), 태학사, 1988.(1934. 9. 26 -1935. 3. 2 『동아일보』 연재)

단행본

- 구인환, 『이광수 소설 연구』, 삼영사, 1983.
- 김윤식, 『1930년대 농촌 계몽의 문학적 양상』, 『한국문학의 논리』, 일지사, 1974.
-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개정·증보판), 솔, 1999.
- 소래섭, 『에로 그로 년센스: 근대적 자극의 탄생』, 살림, 2005.
- 신기욱 외,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삼인, 2006.
- 신헌재, 『이광수 소설의 분석적 연구』, 삼지원, 1986.
- 윤홍노, 『이광수 문학과 삶』, 한국연구원, 1992.
- 이선영, 『리얼리즘을 넘어서』, 민음사, 1995.
- 정한숙, 『한국현대소설론』, 고려대 출판부, 1977.
- 정호웅, 『한국현대소설사론』, 새미, 1996.
- 한승욱, 『이광수 연구』, 선일문화사, 1984.
- 한용환, 『이광수 소설의 비평과 옹호』, 새미, 1994.
- Ashcroft, B. etc., 이석호 역, 『포스트콜로니얼문학이론』, 민음사, 1996.

논문

- 권보드래, 「진화론의 갱생, 인류의 탄생」, 『대동문화연구』 제66집, 2009, 223-253면.
- 김병광, 『『흙』과 『고향』의 대비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89.
- 김현경, 「민중에 대한 빛—브나로드운동의 재조명」, 『언론과 사회』, 2008. 가을, 50-91면.
- 남춘애, 「이광수(李光洙) 『흙』의 서사구조(敍事構造)의 양상(樣相)」, 『문예시학』, 2006, 155-168면.
- 민병휘, 「춘원의 『흙』과 민촌의 『고향』」, 『조선문단』, 1935. 6.
- 서영채, 「이광수, 근대성의 윤리」, 『한국근대문학연구』, 2009, 147-180면.
- 오운호, 「『흙』의 식민지 근대와 수사적 특이성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004, 39-63면.
- 우남득, 「한국 근대소설의 인물, 서사유형 연구—이광수와 김동인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4.
- 이명우, 「이광수의 『흙』 연구」, 『동국어문학』, 1995, 259-282면.
- 이상신, 「1930년대 한국과 농촌계몽소설 『흙』에 나타난 이광수의 계몽 의식」, 『지역연구소 논문집』, 1994, 18면.
- 이진경, 「수행적 민족성 - 1930년대 식민지 한국에서의 문화와 계급」, 『한국문학연구』, 2005, 31-71면.
- 이현주, 「일제하 (수양)동우회의 민족운동론과 신간회」, 『정신문화연구』, 2003, 185-209면.
- 이혜령, 「신문·브나로드·소설」, 『한국근대문학연구』, 2007, 165-196면.
- 임영환, 「1930년대 한국농촌사회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6.
- 정선태, 「이광수의 『농촌계발』과 『문명조선』의 구상」, 『상허학보』, 2004, 195-222면.
- 최갑진, 「이광수 ‘흙’의 시공간성 연구」, 『동남어문논집』, 1992, 239-250면.
- 홍혜원, 「이광수의 『흙』 연구」, 『이화어문논집』, 1999, 313-334면.

<Abstract>

The meaning of a farm village presented in
farmers-enlightening novels in 1930s
- Mostly referring to Lee Gwang-soo's 『Earth』

Cha, Seong-Yeon

This paper was intended to examine the meaning of ‘a farm village’ in 1930s through Lee Gwang-soo’s full-length novel 『Earth』. Owing to city-centered introduction of Western modern civilization which started after the Time of Enlightenment, the farm villages of Korea in 1930s have become a place where a premodern value and custom remain and simultaneously contradictions of modernization formed centering around a city appear. Such a reality re-appeared in novels and was represented in novels in 1930s in a standardized pattern in which the opposing structure between a city and a farm village could frequently be showed.

In the midst of such phenomena, the farmers-illuminating novels such as 『Earth』 or 『Ever green tree』 represent the process in which ‘city-student’ classes visited farm villages and give an education in characters and hygiene ideas in a setting of farmers-illuminating campaigns that carried out centering around Joseon-Donga Ilbo. A farm village was a materialistic foundation on which ‘city-student classes’ are able to enjoy modern civilization and grow the leadership class of society, so that they had a consciousness of owing a kind of debt to a farm village and show a psychological mechanism for

paying such a consciousness of debt through a farmers-illuminating campaign. Also, when analyzed centering around 『Earth』, it can be said that the farm villages in 1930s was a place where premodern habits and a modern legislation system were opposed and was ‘an internal colony’ where the difference in the inside of Joseon was clearly revealed and, simultaneously, was a place where a transcendent value was projected and demonstrated to imaginatively remove the difference.

Key Words : Lee Gwang-soo, 『The Earth』, Farm village in 1930s,
Internal colony

■ 논문접수 : 2011년 2월 28일
■ 심사완료 : 2011년 4월 10일
■ 게재확정 : 2011년 4월 15일